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박찬승 | 한양대학교 사학과

■ 논문분야 한국근대사

■ 주제어 민족, 국민, 동포, 족류, 국가

■ 요약문

중국에서는 이미 『상서』 시대에 '족류'라는 말로써 종족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족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조선에서 '족류'는 '아족'을 여진족이나 왜족과 구별할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동포'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했다. '동포'는 본래 같은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갔다. 특히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백성은 나의 동포(民吾同胞)'라는 말을 국왕은 자주 인용하면서 백성들을 애휼의 대상으로 지칭할 때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국왕들은 더 나아가 양반 등 지배층에게 호포제 실시를 요구할 때, '모든 백성은 나의 동포'라는 말을 자주 꼬집어내었다. '동포'라는 말은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 운동 이후 더욱 자주 사용되었고, 그 의미도 확대되었다. 이때의 '동포'는 단순히 국왕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 동포 내부의 평등 또한 강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1906년 이후 국내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래 '민족'이란 상고 시대 이래 중국에서는 '민의 무리'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를

1. 머리말

주지하듯이 '민족'의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네스트 겔너, 베네딕트 앤더슨, 그리고 에릭 홉스봄 등의 근대주의설¹⁾과 앤서니 스미스의 역사주의설을 들 수 있다.²⁾ 전자는 근대 이후에 네이션(nation)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근대적 네이션 이전에 그 역사적 토대로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에스노스(ethnos, ethnic group)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에서 '민족'이 언제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양자의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사에서 '민족'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민족' 형성 과정을 정리하는 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물론 '민족'의 형성과 '민족 개념'의 형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지만, '민족' 형성 문제는 보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단 '민족 개념'의 형성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을 먼저 정리할 수 있다면,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물론 근대 이후이다. 그리고 근대 초기에는 '민족' 외에도 '동포' '국민' '인민' 등 다양한 용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 개념의 형성 문제를 정리하려면, 이들 다른 용어들의 용례와도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

서양의 nation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에서는 1870년대 초에 이미 nation을 '민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이를 따라서 양계초가 1903년경에 쓴 글에서 '민족'과 '국민'을 구별하여 각각 개념 정의를 했다. 독일 유학생들은 일본에서의 용례를 따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1910년 이전에 그리 자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1906년 이후 양계초의 영향으로 '민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시작했으며, '대한민족'·'조선족' 등의 호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 '민족'보다 더 많이 쓰인 용어는 '국민'이었다. 그것은 한국인이 '신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7년 하반기(고종 양위) 이후 대한제국은 형해화되어 갔고, '신국민' 또한 기대만큼이 되었다. 여기서 국권회복과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새로 떠오른 개념이 '민족'이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국권회복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 개념은 그 내부에 평등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설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근대 민족', 즉 nation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되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독립운동의 주체,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했다.

-
- 1)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어네스트 겔너(1988),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베네딕트 앤더슨(2002),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출판; E. J. 홉스봄(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창작과비평사.
 - 2) Smith, Anthony D.(1979), *Nationalism in Twentieth Century*, Oxford: Martin Robertson; id.(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앤서니 스미스(1996),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철구 역, 명경.

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민족'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자 한다.³⁾ 그런데 기존의 '민족'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민족' 개념과 유사한 용어의 존재 유무, 근대 이후 '동포'라는 용어를 거쳐 '민족' 개념이 정착하는 과정, '민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 '민족'이라는 용어가 '국민'이라는 용어보다 더 부각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천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당시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 그리고 유학생들의 학술지에 실린 글을 통해 당시 한국에서 '민족'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민족' 개념이 왜 이 시기에 것처럼 부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대한제국기 '족류(族類)' '동포(同胞)' 의 개념과 범주

한국의 종족이 중국 종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종족이라는 의식은 조선 초기부터 분명히 있었다. 성종대 양성지는 다음과 같이 조선은 중국과 말과 습속이 다른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 '국민' '민족' '동포'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자들이 있다.

月脚達彦, 1999, 「甲午改革の近代國家思想」, 『朝鮮學報』 172, 朝鮮學會; 권용기, 1999,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집; 백동현, 2001,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Schmid, Andre(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권보드래, 2004,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독립신문』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김동택, 2004, 「〈국민수지〉를 통해 본 근대 '국민」, 같은책; 박노자, 2004, 「개화기의 국민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같은책.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遼水)의 동쪽 장백산(長白山)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 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됩니다. 단군(檀君)이 요(堯)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조선(箕子朝鮮)·신라(新羅)가 모두 1천 년을 누렸고, 전기(前朝)의 왕씨(王氏) 또한 5백 년을 누렸습니다. 서민(庶民)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士大夫)는 문무(文武)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封君)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事大)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小中華)라고 부르면서 3천 9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중략) 원(元) 나라의 세조(世祖)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舊俗)을 그대로 따르게 했고, 명(明) 나라의 고황제(高皇帝)는 우리 스스로의 성교(聲教)를 허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교(聲教)를 가지게 한 것은 언어가 중국과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⁴⁾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 확인은 '동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를 오랜 역사 속에서 유지해 왔다는 의식 외에도 종족적으로 중국인이나 왜인과는 다르다는 의식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를 말해 주는 단어가 '족류(族類)' 또는 '동포(同胞)'였다.

1) 조선시대의 '족류(族類)' 용례

중국에서 오늘날 '민족'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한 단어는 '족류(族類)'였다. 족류라는 단어는 이미 『상서(尙書)』에서 나오고 있다. 『상서』(권1)에서는 "帝曰 吁咈哉 方命圯族 咈戾也 方命負命也 族類也 圯族敗類也"라 했다. 『주역경전집해(周易經傳集解)』(권7)에서도 "異體爲配 同體爲宗 異類爲配 同類爲宗 宗也"

4) 『성종실록』 성종 12년 10월 17일.

者 其族類也”라 했다. 여기서 족류(族類)는 대체로 동족(同族: 집안), 무리 등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관총의(周官總義)』(권2)에서는 “或爲戎狄之民 非我族類 何以置於宿衛之列”이라 했다. 또 『후한서(後漢書)』(권104하)에서는 “蠻夷戎狄 將有 讓之言 況我族類 而不痛心邪”라 했다. 여기서는 만이융적(蠻夷戎狄)과 구별되는 아족류(我族類)를 말하고 있다. 중국 고대에 쓰이던 ‘족류’라는 용어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ethnos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族’이라는 단어도 그와 같은 용례로 주로 쓰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래 ‘族’이라는 단어가 일가, 집안이라는 뜻, 그리고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族類’는 글자 뜻대로 풀이하면 ‘族’이 같은 무리, 즉 동족(同族)을 의미한다. 정종 때 박석명(朴錫明)이라는 관리는 “『춘추(春秋)』에서 삼가 중화와 이적을 분별(分辨)한 것은 같은 족류(族類)가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서 화하(華夏)를 어지럽히는 계제가 싹트기 때문입니다”(謹華夷之辨者 以其非我族類 其心必異 萌猾夏之階也)라고 했다.⁵⁾ 여기서 “우리 족류가 아니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다”(其非我族類 其心必異)라는 대목은 그 이후 인조대 즈음까지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세종은 “야인(野人)들이 귀순해 오니 예의상 후하게 대해야 마땅하나 우리 족류가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니 어찌 그 귀부(歸附)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출입하는 것을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⁶⁾ 세종 때 예조에서도 “귀화한 야인들이 (중략) 간혹 술로 인하여 서로 다투어서 사람을 상해하는 일까지 있어 아무리 금지하여도 우리 족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밤마다 모여서 마시고 방종하기를 꺼리지 않으니 장래가 걱정되옵

5) 『정종실록』 정종 1년 7월 10일.
6) 『세종실록』 세종 16년 1월 12일.

니다”라고 했다.⁷⁾ 성종대 조정에서는 귀화한 여진인 김단다무(金丹多茂) 등을 내지에 옮겨 살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놓고 논의했다. 이때 이극배(李克培)는 “오랑캐는 우리 족류가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더욱 삼가고 엄하게 해야 마땅할 것인데 어찌 내지로 불러들여서 우리 백성(吾民)과 함께 살게 하겠습니까”라고 반대했다.⁸⁾ 세종대 도승지 안송선(安崇善)도 “(여진인들이) 우리 족류가 아니라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니 어찌 그 귀순하는 마음만을 믿고 출입의 단속을 엄히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⁹⁾ 여기서 “우리 족류가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非我族類 其心必異)이라는 말은 조선 전기 야인들을 구별할 때 상투적으로 쓰이는 말이었다.

우리 족류가 아닌 것은 야인, 즉 여진인만이 아니었다. 왜인들도 역시 우리 족류가 아니었다. 세종대 박은(朴訥)과 허조(許稠)는 국왕에 올린 계문에서 “왜인(倭人)들은 우리 족류가 아니므로 서울이나 경상, 전라도에 많이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나누어서 깊고 궁벽진 곳에 두소서”라고 했다.¹⁰⁾ 세조대 사헌부 장령 권충(權衝) 등은 상소에서 삼포(三浦)의 왜노(倭奴)는 “우리 족류가 아니니” 그들이 사는 곳까지 순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¹¹⁾ 또 중종대 기록을 보면, 유구(琉球)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족류가 아니다”라고 구분하고 있었다.¹²⁾

이처럼 조선 초기부터 ‘족류’는 야인·왜인들과 조선 사람들을 구분할 때

7) 『세종실록』 세종 27년 3월 6일.
8) 『성종실록』 성종 18년 11월 21일.
9) 『세종실록』 세종 16년 1월 12일.
10) 『세종실록』 세종 1년 7월 6일.
11) 『세조실록』 세조 3년 7월 13일.
12) 『중종실록』 중종 39년 3월 29일.

사용되는 용어였다.¹³⁾ 이와 같은 '족류'라는 단어의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인조대까지 발견된다. 하지만 이후 외족(外族)과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기 때문인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용례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같은 친족 혹은 같은 무리라는 의미의 '족류'라는 단어가 간혹 눈에 띈다.¹⁴⁾

이상에서 본 것처럼 조선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족류(族類)'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ethnos(ethnic group)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조선인과 여진인, 왜인 등 외족을 구분할 때 주로 '족류(族類)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족과의 경계짓기를 위해 족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족류'는 타 종족과의 경계짓기를 통하여 자기 종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단어라고 할 것이다.¹⁵⁾

2) 조선시대의 '동포(同胞)' 용례

'동포(同胞)'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 곳곳에서 보이는데,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⁶⁾ 그것은 1)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기, 즉 형제나 자매, 2) 국

13) '족류'라는 용어는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4) 『영조실록』 영조 49년 5월 2일, 『정조실록』 정조 20년 3월 27일.

15) 에드먼드 리치는 『고지 미안마의 정치체제』에서 카틴족을 민족집단일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보다는 오히려 인근 집단과의 관계에서였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인류학자 프레드릭 바르트로 역시 민족은 자기 집단이 아닌 타 집단과의 경계짓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민족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에서 이른바 '경계주의'라고 불린다.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 2001, 『현대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김태영 역, 일본어뱅크, 33~34쪽 참조.

16)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동포'와 『독립신문』에 실린 '동포'의 용례에 대해서는 이미 권용기의 연구가 있다(권용기, 1999, 앞의 글 참조). 하지만 권용기는 『조선왕조실록』의 '동포'라는 용어

왕의 은혜를 다 같이 입고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¹⁷⁾ 첫 번째 사례, 즉 동기의 의미로서 동포의 용례를 들어보자. 세종 때 공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자는 제문에서 "동포의 정이 간절하여 마음을 달래며 눈물만 흘리노라"라고 말했다.¹⁸⁾ 또 숙종 때 사간원이 민진원을 유배 보낼 것을 청하자 김홍경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서 그는 "인현황후의 동포는 단지 민진원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면서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을 청했다.¹⁹⁾ 이러한 경우, 동포는 명백히 형제자매로서의 '동기'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용례는 많지 않았다. 동포라는 용어는 주로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백성'이라는 의미로서의 '동포'라는 용어는 본래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民吾同胞 物吾與也)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이 말은 조선시대 경연의 교재로 사용되던 주자(朱子)의 『근사록(近思錄)』에 입되어 조선의 국왕이나 관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국왕은 백성들을 동포처럼 생각하고 어진 정치를 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먼저 조선 전기에 사용된 '동포'의 용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만물을 살리는 마음을 본받으시고 동포(同胞)의 의리로써 생각하시어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어여뵈 여겨 공경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가 주로 국왕이나 지배층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정주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즉, 왕도정치의 대상으로서의 '동포'로서 쓰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족'이라는 의미로서의 '동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7)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을 보면, '동포'는 1)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2) 한나라 또는 한겨레에 딸려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글학회 편, 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8) 『세종실록』 세종 6년 3월 4일.

19) 『경종실록』 경종 2년 3월 25일.

삼가소서.(이언적의 상소문)²⁰⁾

“동명(東銘)과 서명(西銘)은 긴요한 글이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한다’라고 한 말은, 곧 백성이 굶주리는 것이 내가 굶주리는 것과 같고 백성이 떠는 것이 내가 떠는 것과 같다는 것이니, 이 말이 매우 깊고 간절하다.”(명종의 말)²¹⁾

만약에 녹둔도의 포로를 쇠환하는 자들만 상경(上京)시키도록 정한다면 뜻밖의 간교한 속임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포로들도 똑같은 동포(同胞)인데, 이들만 버려 두고 외면하는 것은 왕정(王政)의 체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지만,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옳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선조의 비망기)²²⁾

위의 글에서 ‘동포’는 “백성은 국왕의 동포”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국왕은 백성들을 동포=형제라는 심정으로 보살피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포는 주로 국왕의 애휼(愛恤)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동포’라는 말이 더욱 자주 쓰였다. 조선 후기에도 동포는 기본적으로 치자(治者)의 애휼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조는 강원도의 수재로 사망한 이들에 대해 “모두 나의 동포 백성이니 죽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를 행해야 한다. 누구는 제사를 지내 주고, 누구는 제사를 지내 주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²³⁾

20) 『중종실록』 중종 34년 10월 20일.
21) 『명종실록』 명종 10년 9월 27일.
22) 『선조실록』 선조 20년 11월 21일.
23) 『선조실록』 선조 38년 8월 21일.

숙종은 ‘백성은 나의 적자로서 동포’라는 말을 자주 했다. 예를 들어, “만민(萬民)은 동포(同胞)의 적자(赤子)인데도, 내가 능히 내 몸이 다친 듯하고 적자(赤子)를 보호하는 듯하는 은택(恩澤)으로써 아래에 미루어 미치지 못하므로, 수심(愁心)과 원한(冤恨)이 길에 가득하여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세가 바야흐로 급박하다”고 말했다.²⁴⁾

‘동포’라는 용어를 즐겨 쓴 군왕은 영조였다. 영조는 지방의 방백, 수령들에게 백성들을 ‘동포’로 생각하고 잘 보살피라는 말을 자주 내렸다. 예를 들어 영조는 “나의 백성이 굶주림 가운데 거둬 해진 옷으로 이런 엄동설한을 만나니 더 더욱 어찌 살 수 있겠는가?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하고 난간에 나와 하유(下諭)하노니, 아! 도신(道臣)·수령(守令)은 나의 이러한 뜻을 체득하여 동포를 보호하듯 하되 마음을 써서 구제하고 내가 한밤중에 당부하는 효유를 버리지 말도록 하라”고 당부했다.²⁵⁾ 그는 “아 그대들 360고을의 수령은 모두 이 뜻을 본받아 백성을 동포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²⁶⁾ 영조는 또 “도연명은 수령이 되었을 때, 능히 동포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다. 아 우리 백성들은 바로 옛날에 애휼하던 적자들이다”라고 하여, 애휼지민으로서의 동포를 강조했다.²⁷⁾ 위에서 영조가 말하는 ‘동포’는 치자의 애휼의 대상, 구제의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동포’의 의미는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 그 사례를 들어 보자. 영조 26년 영조는 유생들을 모아 놓고 아래와 같이 호포법(戶布法) 실시를 설득했다.

24) 『숙종실록』 숙종 14년 11월 22일.
25) 『영조실록』 영조 23년 12월 26일.
26) 『영조실록』 영조 33년 5월 17일.
27) 『영조실록』 영조 38년 4월 2일.

“너희들은 유생에게 호전을 부과하는 것을 불가하게 여길 것이나 위로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역(役)은 고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백성은 나의 동포이니 백성과 함께해야 한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赤子)인 것이다. 피차간에 어찌 애증(愛憎)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일 잠저(潛邸)에 있을 때라면 나도 의당 호전(戶錢)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한 집에서 노비나 주인이 똑같이 호전(戶錢)을 내는 것은 명분을 문란시키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호(戶)가 있으면 역(役)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또 양민은 오래도록 고역(苦役)에 시달려 왔으니, 기어코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²⁸⁾

영조는 위로 삼공(三公)으로부터 아래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역(役)을 고르게 해야 한다면서, 양반이나 평민이나 모두 같은 국왕의 동포이고 적자이기 때문에 호전(戶錢)을 같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국왕이 볼 때 양반이나 평민은 모두 같은 ‘동포’라는 말이었다. 앞서 본 ‘애홀지민’으로서의 ‘동포’가 수직적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수평적 의미에서의 동포’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왕만이 아니었다. 선조대 홍문과 부제학 이정형(李廷馨) 등은 “백성은 임금의 적자이고,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다”(民者 君之赤子也 我之同胞也)라고 하여,²⁹⁾ 관료층 가운데에서도 백성을 자신들의 ‘동포’라고 말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선조대 실록을 쓴 사신(史臣)은 임진왜란 이후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사망으로 흩어진 것을 기록하면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동포인 백성(同胞之民)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이

가 없을 것이고, 그런즉 백성들은 다들 위를 따르고 어른을 위하여 몸을 바칠 것이니 중흥의 정치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했다.³⁰⁾ 관료들 사이에서도 ‘동포인 백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보수 양반의 대표격이라 할 송시열도 숙종에게 장재의 ‘민오동포(民吾同胞)’라는 글을 설명하면서 “백성은 모두 나의 동포(同胞)인 사람들인데, 천지(天地)의 기(氣)를 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포란 곧 같이 태어난 사람이니, 말하자면 ‘내가 남을 볼 적에 모두 자기의 형제와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개 물(物)과 아(我)가 비록 친소(親疏)의 구분은 있지만 똑같이 하나의 기(氣)인 것이므로,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이를 친애하고 백성들에게 인(仁)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인(仁)하고 물(物)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라고 말했다.³¹⁾ 천지의 기를 같이 받은 백성들은 모두 동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송시열의 말은 장재의 글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백성은 모두 나의 동포인 사람들”(民則皆吾同胞之人)이라고 말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동포’라는 개념에는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되는 것이었을까. 일단 양반과 평민은 모두 포함되는 말이었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영조는 양역 변통의 논의를 진행할 때에 양반 유생들에게 “너희의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인 것이다”라고 말했다.³²⁾ 그러면서 그는 ‘양민(良民)’의 고역을 면해 주기 위해 양역 변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조대에 좌부승지 김하재의 상소문을 보면, 균전법을 실시하는 경우 “부호가 겸병할 걱정이 없고, 소민(小

28) 『영조실록』 영조 26년 7월 3일.

29) 『선조실록』 선조 27년 5월 27일.

30) 『선조실록』 선조 29년 6월 18일.

31) 『숙종실록』 숙종 6년 10월 14일.

32) 『영조실록』 영조 26년 7월 3일.

民)은 동포의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³³⁾ 여기서 소민은 역시 평민층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천민들도 ‘동포’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영조는 교유를 통해 “장재의 『서명(西銘)』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와 함께 한다’ 했으니, 아무리 하천(下賤)이라 하더라도 이미 온전히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육신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가려 하는 것은 상정(常情)”이라면서, 사람의 발가락을 끊는 난장(亂杖)과 같은 형벌을 금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³⁴⁾ 물론 “아무리 하천이라 하더라도” 식의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백성은 나의 동포’라는 말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영조의 입장에서는 천민도 동포의 범주 안에 넣어서 생각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순조 1년 내노비(內奴婢)와 사노비(寺奴婢) 혁파 당시에 나온 윤음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제학 윤행임이 지은 이 윤음은 “군왕이 백성에게 임하여 귀천이 없고 내외가 없이 고루 균등하게 적자로 여겨야 하는데, ‘노(奴)’라 하고, ‘비(婢)’라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라면서, 내노비 3만 6천여 명, 시노비 2만 9천여 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³⁵⁾ 내노비와 시노비의 해방을 지시하면서 나온 글이기는 하나, 노비도 또한 똑같이 사랑하는 동포라고 언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포’의 용례를 검토하면, ‘동포’는 처음에는 애휼(愛恤)의 대상으로서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수평적 의미에서의 동포, 즉 내부적 동질성을 갖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본 ‘족류’가 외족(外族)과의 경계짓기를 위한 용어

였다면, ‘동포’는 내부의 동질성 확인을 더 강조하기 위한 용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포’의 개념을 통한 내부의 동질성 확인은 신분 문제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군왕을 중심으로 서서히 신분을 뛰어넘어 동질성을 확인하는 용어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1890년대 후반 이후 ‘동포’의 개념 확대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 운동기에 들어 과거의 ‘동포’라는 용어는 더욱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³⁶⁾ 『독립신문』은 ‘전국 동포형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당시 이 말은 ‘전국 인민’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쓰였다. ‘국민’이라는 용어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인민’이나 ‘백성’이 아직 일반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동포’는 여전히 ‘인민’ ‘백성’과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동포의 용례에서는 평등의 개념이 들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경성학당에서 있었던 광무협회의 연설회에서 한 연사는 “오늘날 이 회석으로 볼진대 회원이나 방청하는 이들에 대한 풍속으로 말하면 상하귀천이 있을 터인데, 다 동등으로 경례를 하여 차등 없이 대접을 하니 이것이 또한 동포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뜻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³⁷⁾ 『독립신문』의 한 논설도 동포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농공상의 모든 동포들”이라고 지칭하여 계급 계층을 뛰어넘는 동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³⁸⁾

앞서 본 것처럼 조선시대의 ‘동포’는 주로 ‘애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동포’는 주로 ‘계몽’의 대상, 또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였다.³⁹⁾ 예

33) 『정조실록』 정조 3년 11월 27일.

34) 『영조실록』 영조 46년 6월 18일.

35) 『순조실록』 순조 1년 1월 28일.

36) 이 부분에 관한 서술은 권용기, 1999, 앞의 글과 권보드래, 2004, 앞의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

37)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2월 19일 「도라간 일요일 경성학당에서 광무협회 연설」.

38)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7월 11일 「은전 인용」.

39) 권보드래, 2004, 앞의 글, 116~118쪽.

를 들어 “敎하는 인민들은 교를 참 믿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신을 하며 동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불쌍하고 어리석은 동포들을 모두 꿈에서 깨게 하여”라고 한 부분에서는 ‘계몽’의 대상으로서의 동포를 말하고 있었다.⁴⁰⁾ 그리고 “원컨대 조선 인민은 자기 임군과 동포형제를 생각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여 나라 중흥되기를 경영들 하시오”라고 한 부분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로서의 동포를 말하고 있었다.⁴¹⁾

한편 ‘동포’는 이제 단순히 국왕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아니라, ‘2천만 동포들이 모두 충애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역사의 주체로서 서서히 인식되고 있었다.⁴²⁾ 『독립신문』은 한 논설에서 “우리 동포들은 연일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거든 말로만 말고 몸소 시행하여 하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게으른 데 썩어 버리지 말고 벗어 붙이고 무슨 일 이든지 생애될 일을 하여 지체니 모양이니 보지 말고 맡은 일을 모군 서는 것이든지 대신 노릇하는 것이든지 일심으로 힘써 행하여 남에게 구차한 소리 아니 하고서도 내 일신에 의식만족(衣食滿足)할 뿐 아니라 부모를 효양하고 처자를 보호하거든 자연히 내 마음에 독립하는 생각이 날 것이오”라고 했다.⁴³⁾ 또 “우리 대한 전국에 있는 1천 2백만 동포 형제가 다 일심 일력으로 나라를 도와 우리나라도 지금 구라파에 있는 여러 상등국들과 동등국이 되기를 기어이 바라오며”라고 했다.⁴⁴⁾ 이들 용례에서의 동포는 계몽의 대상이 아닌 개화의 주체로서의 ‘동포’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동포라는 용어는 점차 대중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덕구라는 의사의 장례를 치를 때의 장면을 보도한 기사에

40)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9월 3일 「논설」.

41) 『독립신문』 1897년(광무 원년) 3월 16일 「논설」.

42) 권용기, 1999, 앞의 글, 254~255쪽.

43)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7월 15일 「독립하는 상책」.

44)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8월 9일 「유지각한 친구의 편지」.

의하면, “대소 인민이 모두 그 상여를 어깨에 메고 소리를 지르며 서로 화답하는 노래에 가로되 ‘어화 우리 동포들아. 충군애국을 잊지 마라. 대한 의사 김덕구씨는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하다가 옳은 의리에 죽었으니 그런 의리가 또 어디 있느냐...’라 하여, 상여군들이 ‘동포’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⁴⁵⁾

그런가 하면 ‘동포’는 사해동포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의 한 논설은 “천하만국이 통상하는 때를 당해야 사해 백성이 다 같은 동포이어늘...”이라 말하고 있었다.⁴⁶⁾ 또 “선교사의 행위를 보건대 대한 황제 폐하를 자기 임군으로 알고 충애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대한 사람들을 동포형제로 사랑하며 구제하는 풍도가 지극한즉, 우리는 무부무군의 도라 함을 믿지 않노라”라고 하여,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동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⁴⁷⁾ 군주인 고종 황제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칙에서도 “이제 만국이 서로 통한하여 사권 의가 더욱 두터울뿐더러 하나님에 위예 계시사 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한결같이 보시나니 어찌 내 지경, 네 지경을 의론하며, 여기 약함과 저기 강함을 나누리오. 우리가 모두 동포지인이라 동포한 형제로 형이 아우를 해하여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아우가 형을 해하여도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지라”라고 하여, 역시 만국 인민이 ‘동포’임을 강조하고 있었다.⁴⁸⁾

45)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4월 7일 「잡보: 의리 있는 부상」.

46)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10월 5일 「논설」.

47) 『독립신문』 1898년(광무 2년) 12월 24일 「예수 탄일」.

48) 『독립신문』 1896년(건양 원년) 4월 9일 「논설」.

3.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 수용

1) 일본·중국에서의 '민족' 개념 수용

동양에서 '민족'이란 용어는 근대 이후에 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서양의 nation을 번역하면서 '민족'이란 용어가 쓰인 것이다. 물론 중국의 문헌 속에서 '민족(民族)'이란 단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즉, 民의 族)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자료로는 6세기의 『남제서(南齊書)』 「열전(列傳)」 35의 「고일전(高逸傳), 고환전(顧歡傳)」 가운데의 “今諸華士女 民族不革 而露首偏跣 用夷禮”라는 대목이다. 그 내용은 사대부나 그 자녀들까지도 중국 북조(北朝)의 이민족의 풍속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아도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 한 문집(『섬원문집剡源文集』)에 “天下之民族 亦無別生分類”라는 대목이 있지만, 그냥 '민의 무리'라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근대에 들어 동양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일본이었다. 필립 황에 의하면, 1872년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블룬칠리의 책을 번역하여 『국법범론(國法汎論)』의 이름으로 펴냈는데, 이 책에서 블룬칠리가 말한 state, volk, nation의 개념을 각각 국가, 국민, 민족으로 표현했다고 한다.⁴⁹⁾ 필립 황에 의하면, 중국의 양계초는 가토 히로유키의 '민족'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양계초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은 1899년 「동적

49) Huang, Philip C.(1972),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p. 56~64(양드레 슈미드,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677쪽 참조).

월단(東籬月旦)」이라는 글이었다고 한다.⁵⁰⁾

양계초는 또 1903년에 쓴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伯倫知理)의 학설」이란 글 이후 민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블룬칠리의 '국민'과 '민족'에 대한 학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블룬칠리는 학자들이 왕왕 국민과 민족을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의 개설에 대해 말하기를 “민족이라는 것은 민속(民俗), 연혁(沿革), 소생(所生)의 결과이다. 민족이라는 것은 다음의 가장 중요한 8가지 특질을 지닌다. 1) 처음부터 한 곳에 동거하며(동거하지 않으면 같은 풍속을 만들기 어렵다. 혹 같은 민족이라도 각지에 분거하며, 혹 이족이라도 한 곳에 잡거하기도 한다), 2) 처음부터 동일한 혈통이며(오래된 경우 타족을 흡수하여 들이기도 하며, 또 서로 동화되기도 하여 혈통이 같지 않더라도 동일한 민족이 되는 경우도 있다), 3) 그 지체나 형상이 같으며, 4) 그 언어가 같으며, 5) 그 문자가 같으며, 6) 그 종교가 같으며, 7) 그 풍속이 같으며, 8) 그 생계가 같다. 이 8가지가 갖추어지면 부지부식 간에 타족과 서로 간격을 가지면서 하나의 특별한 단체를 조성하게 되며, 하나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되며, 이를 자손들에게 전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민족이라 한다.”⁵¹⁾

이어서 양계초는 블룬칠리의 '국민'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국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의 법률체(法團)로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그는 국가가 하나의 완전 통일된 영생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50) 백영서, 1995,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86쪽 참조.

51) 梁啓超, 1905, 『飲水室文集』(하), 廣智書局本, 「學說」, 141쪽.

활동의 정신에 의지하여 이를 채워야 하며, 따라서 국민은 곧 국가이며,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면, 실제로 국가와 국민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양계초는 “민족이란 동일한 언어와 풍속을 가지고, 동일한 정신과 성질을 가지며, 그 공동심(公同心)이 점차 발달하여 건국의 계제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아직 연합하여 일국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때에는 끝내 인격이 법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민족이라 하지 국민이라 하지는 못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즉, 민족은 국가를 세워야만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⁵²⁾

그는 또 1902년에 쓴 「논민족경쟁지대세(論民族競爭之大勢)」에서는 서구에서의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발흥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서양에서 민족주의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4백 년 전부터라고 말하면서, 민족주의가 이와 같이 힘을 얻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옛 봉건 시대에는 분토분민(分土分民)하여 혹 같은 민족이라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혹 같은 나라라도 다른 민족들이 살았지만, 봉건의 폐가 드러나면서 민(民)들이 자립을 구하여 무리를 이루고, 이에 종족(種族)의 경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동족(同族)끼리는 서로 융화하여 모이고, 이족(異族)끼리는 서로 반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타족(他族)의 견제와 억압을 받고 있던 자들은 분골쇄신해서라도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나타났으니,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모두 같은 민족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며, 헝가리는 이민족인 오스트리아와 분리하게 된 것이 그 현저한 예라고 설명했다.⁵³⁾

52) 梁啓超, 1905, 앞의 책.

53) 梁啓超, 1905, 『飲氷室文集』(상), 廣智書局本, 「時局」, 1쪽.

2)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 수용

한국의 지식인들이 '민족'이란 말을 수용한 통로는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이었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00년이였다. 1900년 1월 12일자 『황성신문』에는 '동방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백인민족과 대비하여 사용되었다. 즉, 이때의 '민족'은 '인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⁵⁴⁾ 인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1907년 『황성신문』의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논설에서도 보인다. 즉, “同胞二千萬名에 必不獨徐氏等幾人만 抱此等意氣니 吾敢信此機가 一動에 舉國이 響應하여 將俾六州列國으로 莫不敬服我大韓國하고 將俾五種民族으로 莫不崇拜我大韓人하여 卽此二十世紀今日世界에 大韓國民名譽聲價가 照耀全球하리니”라 했는데, 여기서 '민족'은 '인종'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⁵⁵⁾

권보드래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매일신보』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1906년에 26회, 1907년에 47회, 1908년에 139회, 1909년에 126회 등장했다고 한다.⁵⁶⁾ 당시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에서 '민족'이란 말은 일부 '인종(race)'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본 가토 히로유키와 양계초가 정의한 '민족(n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⁵⁷⁾

54) 백동현, 2001, 앞의 글, 163쪽.

55) 『황성신문』 1907년(광무 11년) 2월 25일, 「논설: 斷煙報國債」.

56) 권보드래, 2007,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58쪽.

57) 권보드래의 위의 글에 의하면, 이 시기 『대한매일신보』에서 쓰인 '민족'이라는 용어는 ① 단 순히 인간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 ② 부족을 가리키는 개념, ③ 현존 국가체제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개념, ④ 국가체제 부재의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국가의 원형적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 등 4가지로 쓰였으며, 점차 ①에서 ④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① ②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③ ④의 경우는 서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한말 ‘민족’이란 말이 『대한매일신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6년이였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통곡조한국지민(痛哭弔韓國之民)」이란 논설을 보면, 당시 내부대신 이지용을 비판하면서 “噫라 吾輩는 非有所關於內部大臣者라 豈有私憾於內部大臣이리오마는 (중략) 庶幾改悛問題를 惟日祈望이더니 不惟改悛之無望이라 反恃黨援하고, 縱恣無憚이 甚하야 到底顛覆宗社하며 滅亡民族而乃已者故로 吾輩는 不忍袖手越視하야 爲韓國二千萬人民而痛哭一聲 하노니”라 하고 있다.⁵⁸⁾ 즉, 내부대신 이지용의 전횡이 심하여 종사를 전복하고 민족을 멸망시킨 뒤에라야 멈출 것 같다는 말이었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 글에서 처음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후 ‘민족’이라는 말은 간간히 등장하다가 19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 시기의 ‘민족’ 개념의 수용, ‘민족’의 기원과 구성, ‘민족’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차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4.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에서의 ‘민족’ 개념

1) ‘민족’의 기원과 구성

‘민족’라는 말은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구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서상돈(徐相敦)이 『대한매일신보』에 보내와 실은 국채보상운동 취지문 안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민족’과 ‘월남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⁵⁹⁾ 이런 식의 ‘민족’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58) 『대한매일신보』 1906년(광무 10년) 8월 7일, 「論說: 痛哭弔韓國之民」

59) 『대한매일신보』 1907년(광무 11년) 2월 21일, 「잡보: 國채 1천 3백만 원 보상취지」.

‘삼한민족(三韓民族)⁶⁰⁾ ‘대한민족(大韓民族)⁶¹⁾ ‘동국민족⁶²⁾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조선족’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이는 이태리족, 튜튼족, 슬라브족, 한족, 흉노족, 통구스족 등과 비교하여 아족(我族)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까 하는 글에서 나온 제안된 호칭이었다.⁶³⁾ 위의 여러 호칭 가운데 가장 빈번히 사용된 호칭은 ‘대한민족’이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앞서 본 양계초의 ‘민족’ 개념 설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민족과 국민의 구별」이라는 논설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民族이란 자는 只是 동일한 血統에 系하며 동일한 토지에 居하며, 동일한 역사를 據하며, 동일한 종교를 奉하며, 동일한 언어를 用하면 便是 동일한 民族이라 칭하는 바이어니와 國民 二者는 如此히 해석하면 불가할지라. … 國民이란 자는 其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한 외에 又 必同一한 精神을 有하며, 동일한 利害를 感하며, 동일한 行동을 作하야 其 內部的 조직이 一身의 骨格과 相同하며 其 對外的 精神이 一營의 軍隊와 相同하야야 是를 國民이라 云하나니… 嗚呼라. 古代에는 國民자격이 無한 民族이라도 一隅를 據하야 土地를 闢하야 子孫을 長하며 水草를 逐하야 生活을 作하얏거니와 今日에 至하야는 만일 國民資格이 無한 民族이면 大地 上에 側足할 隙地가 無할지라.”⁶⁴⁾

즉, 민족이란 동일한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 등만으로 구성될 수 있

60) 『대한매일신보』 1908년(융희 2년) 7월 28일, 「논설: 韓人可教不可教에 대한 一論」.

61) 『대한매일신보』 1908년(융희 2년) 8월 5일 「논설: 名節書感」.

62) 『대한매일신보』 1908년(융희 2년) 8월 29일 「讀史新論」.

63) 『대한매일신보』 1910년(융희 4년) 5월 11일 「寄書: 我族의 族名」.

64) 『대한매일신보』 1908년(융희 2년) 7월 3일 「민족과 국민의 구별」.

지만, 국민은 그 외에 정신, 이해, 행동 등이 동일해야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글은 앞서 본 바 있는 양계초의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의 학설」(1903년 집필)의 한 부분인 '논국민여민족지차별급모관계(論國民與民族之差別及某關係)'라는 항목을 거의 인용하다시피 한 것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양계초는 블룬칠리의 학설을 빌려 민족을 지리·혈통·형질·언어·문자·종교·풍속·경제생활의 공통성을 지닌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양계초의 민족 개념은 오늘날 민족 형성에 관한 여러 이론에 비추어 보면 원초주의적 민족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원초주의적 민족론은 민족 형성 과정에서의 '원초적 기반'과,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원초적 기반'이란 공통의 친족·조상 혹은 그들의 신앙이나 집단의 역사적 시점을 상징하는 것들이며, '문화적 기반'이란 종교·언어·습속 등의 문화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들이다.⁶⁵⁾ 위에서 본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에서 쓰인 '민족' 개념도 결국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언론들은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 등을 같이하는 '대한 민족'은 어디서 기원했으며, 어떻게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었을까. 1908년 『황성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嗚呼라 我民族은 原是檀箕後裔라 忠原仁慈하던 性質로 胡乃今日에 人心의 陷함이 此極에 至하였나고 我同胞中에 一個人이라도 他族의 侵奪을 被하거나 壓迫을 受하거나 不法虐待를 當하면 即時 自己의 所遭라 엇지 他人의 事로 知하리오 隣家失火하면 自家被燒난 必然之勢니 誰能獨免이며 誰能獨全이리오 惟我同

65) 앤서니 스미스(1996),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철구 역, 명경, 58~60쪽, 요시노 고사쿠(2001), 『현대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김태영 역, 일본어뱅크, 33~34쪽 참조.

胞난 此種舊染의 惡習을 一切痛革하고 惟是奮發心과 自主心과 公德心과 團合心을 養成하여 人人이 本分の 職守를 自勤하며 國家의 責任을 擔負하여야 保國保種의 幸福을 可得할지니 故로 余난 人心革新으로써 根本的改良이라 하노라.⁶⁶⁾

嗚呼라 我韓三千里江由은 俱是白頭枝脉이오 二千萬民族은 同一檀君子孫이니 其血脉의 聯絡과 聲氣의 密接과 痛癢의 相關이 於死生榮辱과 利害禍福에 義無獨殊오 勢必同歸라 (중략) 惟我大韓民族이 均是同胞兄弟로 曾前無事之日에난 外侮를 不被함으로 天屬의 親愛를 忘却하고 反히 私利競爭으로 蕭牆之內에서 自相嫉視하고 自相殘害의 惡行을 加하여 團合의 體力이 全然不成한지라 及其他族의 侵凌을 被하난 境遇에도 互相 衛하며 互相保維를 不圖하고 徒히 有力한 外人을 崇拜 迎하여 引虎自衛의 愚計를 妄行하니 엇지 吞嚙之患을 免하리오 年來 吾人의 目擊한 事實로 證據하건대 曾前我韓이 某國과 締約通好한 時에 我國이 或他強國의 干涉를 被하면 援助를 與하리라는 條約이 有하였스나 其終也에난 反히 他強國의 干涉를 默許한 事가 有하였스니 非我族類라 紙上空言을 何可恃也리오.⁶⁷⁾

위의 글들은 아민족은 단군 혹은 기자의 자손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 혈통과 기운, 그리고 생사영 과 이해관계를 같이해 온 동포형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도 “我韓은 4천년래 民族으로 以上을 溯考하면 同是檀箕後裔로 其枝가 數萬이나 其根則一이니 同胞의 稱이 良有以也”라고 쓰고 있다.⁶⁸⁾ 앞의 『황성신문』과 같은 내용으로, 아한민족은 모두 단군과 기자의 후예로 뿌리는 하나이며, 그래서 ‘동포’라는 호칭이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대한매

66)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3월 12일 「根本的改良」.

67)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3월 13일 「凡今之人은 莫如兄弟」.

68) 『대한매일신보』 1910년(융희 4년) 6월 22일 「國民의 責任」.

일신보』에 기고된 ‘아족(我族)의 족명(族名)’이라는 글에서도 아족은 “明明白白하게 固有한 同系同種의 族이 亞細亞 東北에 崛起하여 浸浸히 東南으로 發達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⁶⁹⁾ 이른바 ‘단일민족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일민족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채호는 『독사신론(讀史新論)』에서 “東國 民族은 대략 6種으로 分하나니, 一曰鮮卑族, 二曰夫餘族, 三曰支那族, 四曰靺鞨族, 五曰女真族, 六曰土族”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형질상 정신상으로 他五種을 正복하며, 他五種을 흡수하여 東國民族 世位에 據한 者는 실로 夫餘族 一種에 불과하니 蓋四千年 東國歷史는 夫餘族 盛衰消長의 歷史”라고 주장했다.⁷⁰⁾ 즉, 6종족이 모여서 동국 민족을 형성했지만, 부여족이 그 가운데 주종족이라는 것이었다.

2) ‘민족’ 내부의 평등의식

한편 ‘근대 민족’ 형성의 문제를 논할 때, 이른바 ‘전근대 민족’ 혹은 ‘민족체’의 단계와 비교하여 민족 내부의 평등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한말에 ‘민족’을 논하던 이들은 과연 민족 내부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한 일본 유학생은 5월 13일 『황성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此時를 際하여 凡我民族의 男男女女와 老老少少가 莫不飲憤吞恨하고 祈天禱地하여 固有한 國民性을 發揮하고 嚴正한 大義를 宣明할지언날 嗟息다 靑丘三千里에 感聲出身할 者 | 其誰오 八域을 環睹하나 寂然이 聲息이 無하니 嗟嗟 同胞아 爾等은 다 土偶木像인가 靑年同胞난 可히 時勢의 如何함을 理會하리니 深深解諒어

다”라 하여,⁷¹⁾ 민족과 동포를 같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남녀노소 구분없는 ‘아 민족’으로 설정되고 있다. ‘민족’ 내부에는 이제 남녀노소의 구분은 설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동포’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原夫生人之初에 圓其顛方其趾하며 橫其目兩其臂하여 立於天壤之間 而靈於禽獸之類者난 孰非吾同胞男女也며 孰非吾平等種族乎아”라 하여,⁷²⁾ 남녀 모두를 동포로 지칭하고, 종족 내부의 평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석방하여 우리 동포로 삼아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然則奴婢問題에 對하여 其不道不德과 爲損爲害를 大略言之하건대 一則上天의 一視同仁하시난 公理를 違背함이오 一則聖人の 博愛無偏하시난 公德을 放棄함이오 一則明王의 子惠因窮하시난 仁政을 却함이오 一則人民의 平等自由의 權利를 剝奪함이오 一則同胞의 互相敬愛하난 德義를 背馳함이오 一則豪民富戶에 安逸驕傲한 習을 滋長케함이오 一則國民의 固有한 資格을 遺失케함이니 是不可以 釋放者乎아.⁷³⁾

노비제도란 인민의 평등 자유의 권리를 박탈함이요, 동포의 상호 경애하는 덕의를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노비는 자연스럽게 ‘동포’의 범주 안에 포함되었다. 이 글은 아예 오늘날 한인은 준비귀천을 물론하고 모두 타인(타국)의 노비가 되었다면서,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노비를 해방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惟我大韓의 神聖種族은 天道와 王德을 推本하며 國民의 義務를 擴張하기 爲하며 同胞의 仁愛를 表明하기 爲하여

69) 『대한매일신보』 1910년(융희 4년) 5월 11일 「寄書: 我族의 族名」.

70) 『대한매일신보』 1908년(융희 4년) 8월 29일 「讀史新論」.

71) 『황성신문』 1907년(광무 11년) 5월 13일 月曜 「講告我同胞靑年: 在日本留學生 李在寅」.

72)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2월 12일 「논설: 奴婢를 宜乎釋放」.

73) 위와 같음.

一般奴婢男女의 釋放을 是圖할지어다”라고 한 것이다.⁷⁴⁾ 『황성신문』은 빈약 미천한 사람들, 특히 ‘노동자’도 동포라고 말하고 있었다. 즉 “蓋古來歷史에 偉人傑士가 越等한 學識과 絶類한 魄力으로 非常한 事業을 發表한 者난 不必其生長於富貴薰赫家也오 類多出於貧弱微賤之中者난 何也오. (중략) 今夫我韓 勞動同胞中에도 엇지 若個人物이 必無하리라 하리오”라고 하여, 노동동포 중에서도 월등한 학식과 뛰어난 기백을 가진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⁷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민족’을 거론하던 이들은 ‘동포’라는 개념을 빌려 남녀노소, 양반-평민-노비의 차별이 없는 민족 내 평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3) 민족의 역할

그러면 이 시기 ‘민족’은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 우선 ‘민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설명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는 “대저 國은 卽一大家”라면서, “東西에 羅列한 各國이 皆其民族의 家니, 故로 其民族이 其國을 失하면 是난 其家를 失함이며, 其國을 存하면 其家를 存함이니라. 此大韓帝國으로 論하야도 亞細亞 東方에 巍然 建立한 一大家니, 卽大韓民族의 家로다”라고 말했다.⁷⁶⁾ 즉, 국가는 민족의 집이라는 것이었다.

아래의 1907년 4월 26일자, 5월 6일자 논설에 나타나는 ‘2천만 민족’도 역시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我同胞乎아/ 二千萬民族之精神으로 做造我商工國, 武備國, 文明國, 富強國호

74) 위와 같음.

75)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2월 20일 「勸勉勞動同胞夜學」.

76) 『대한매일신보』 1909년(융희 3년) 5월 13일 「國은 卽一大家」.

대 保守者난 非他라 保守我疆土하며 保守我家國하며 保守我國精國粹而已오 改進者난 無他라 改進我社會하며 改進我政治하며 改進我教育學術而已라 無復掩耳閉目之保守者하며 無復喪心失性之改進者하면 我韓이 於是乎庶幾라하노라.⁷⁷⁾

我二千萬民族이 前日則雖作此國之主人이나 今日則己爲客而非爲主也니 此國이 若竟非吾國이오 此民族이 若竟非此國之主人인댄 將或爲天演界之所漸滅하고 將或爲開化力之所暖集하며 或爲奴隸하고 或爲魚肉하야 商戰工戰之慘烈戰場에 日死千人萬人하고 政略兵略之神稱魔術에 日蹙十家百家하야 不過幾十年或幾百年後에 求我韓人於我韓國內할진댄 只有博物院之陳設品幾箇(註己見滅國新法論) 할지라.⁷⁸⁾

여기서도 ‘민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개념은 민족 외에도 국민이 있었다. 그리고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족’이라는 단어의 등장 횟수는 늘어갔다. 앞서 본 것처럼 양계초는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 풍속이 같고, 정신과 성질이 같으면서 공동심이 점차 발달하면 건국의 계제에 이를 수 있지만, 아직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는 인격이나 법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민족’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⁷⁹⁾ 즉, 민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지만 국가를 구성한 다음에야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고 사실상 꺾데기만 남은 나라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민’도 역시 형해화된 상황이

77) 『황성신문』 1907년(광무 11년) 4월 26일 「논설: 保守와 改進」(續).

78) 『황성신문』 1907년(광무 11년) 5월 6일 「논설: 保國論」.

79) 梁啓超, 1907,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飲水室文集』(하), 上海: 廣智書局, 「學說」 141쪽.

었다. '국민' 대신 '민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즉, '민족'은 이제 '국민' 대신 국권회복의 주체로 설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황성신문』 1908년 4월 10일자 논설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嗚呼라 我同胞여 雖其流離漂迫으로 海外에 居留하난 情踪이나 本是檀君箕子의 神聖后裔로 忠孝禮義의 教化를 薰染한 原質이 固有한 民族이라 若其朋分角立하야 團合을 不成하면 蠻族의 指目을 不免할지니 豈非可恥之甚者며 此時代에 吾人의 團合力이 無하면 決코 他族의 蹂躪을 抵抗不得하야 淘汰漸滅하난 境遇에 至할지니 豈非可哀之大者乎아/

惟其完全團合의 好況을 發表하야 文明한 新大韓民族이 되야 健強한 新大韓帝國의 基礎를 樹立하기로 目的을 삼아 吾 人의 希望을 慰洽케 할지이다.⁸⁰⁾

위의 글에서 우리 동포는 본래 단군기자의 신성한 후예로 충효예의의 교화를 받은 고유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차 '문명한 신대한민국'은 강건한 신대한제국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민족'은 국권회복과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단재 신채호의 글로 추정되고 있는 「20세기 신국민」이라는 글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지금 한국은 삼천리 산하가 있으니 그 국토가 넓으며, 2천만 민족이 있으니 그 국민이 많은 것이다. 그러한 즉 국민 동포가 단지 20세기 신국민의 이상과 기력을 분발하여 일으켜, 국민적 국가의 기초를 굳게 하여, 실력을 기르며, 세계 대세

80)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4월 10일 「申告海港同胞」.

의 풍조에 잘 대응하여 문명을 넓히면 가히 동아시아 한 쪽에 우뚝 서서 강국의 기초를 자랑할지며, 가히 세계 무대에 뛰어 올라서서 문명의 깃발을 휘날릴지니 아, 동포여, 어찌 분발하지 않겠는가.⁸¹⁾

2천만 동포, 2천만 민족은 신국민이 되어 새로운 국민적 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세워야 할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채호는 이제 동포=국민=민족의 개념 위에서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여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울 것을 제창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민족'은 그 이전의 '백성'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었다. 그것은 '근대 민족국가'의 주체가 될 '근대 민족', 즉 nation이었다.

민족은 이제 국권회복과 근대 국가의 수립의 주체로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족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혼(朝鮮魂)'으로서 무장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은 '민족(民族)의 혼(魂)'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이는 일본의 '대화혼(大和魂)', 중국의 양계초가 강조한 '중국혼(中國魂)'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907년경에 '조선혼'이라는 말로 등장한 것이었다. 그것은 “人之生死난 以靈魂之聚散하고 國之存亡은 以精神之有無”하기 때문에, “茲敢以一寸舌로 大聲痴呼於全國之中曰我朝鮮魂이여 又敢以一枝筆로 彷徨四索於全國之中曰我朝鮮魂이여”라고 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었다.⁸²⁾ 조선혼은 흔히 '국혼(國魂)' 또는 '민족의 국혼', 그리고 '국수(國粹)'라고 달리 표현되기도 했다. 아래의 글에서 민족은 조선혼 혹은 국혼을 지닌 주체로 설정되고 있었다.

81) 『대한매일신보』 1910년(융희 4년) 3월 3일 「20世紀 新國民」.

82) 『황성신문』 1907년(광무 11년) 2월 6일 「精神과 感覺」.

世界歷史에 何國을 勿論하고 其國民腦髓中에 國魂이 完全堅實하면 其國이 强하고 其族이 盛하난 것이오 國魂이 消鑠磨滅하면 其國이 亡하고 其族이 滅하나니 個人의 性命으로 言할지라도 魂의 存否로써 其生死를 判할지라/ 此其民族의 國魂이 先亡한 所以가 아닌가/

我韓歷史로 證할지라도 高句麗時代에 支文德이 以數千精卒로 의 百萬大衆을 鏖殺하여 片甲不返케하고 梁萬春이 以彈丸小城으로 唐의 六師를 抵抗하여 全遼를 保全하였스니 此其民族의 勁悍勇敢이 可謂無敵於天下라 其國魂의 强壯이 果何如哉아 噫라 如此히 勁悍勇敢한 民族의 國魂이 伊今安在오 我韓은 建國이 四千年이오 其民族은 皆檀君箕子의 神聖后裔오 其人文은 倫教를 尊重하고 義理를 敦尙하던 風化가 固有하니 四千年遺傳하난 朝鮮魂이 亘古亘今에 엇지 消鑠磨滅할 理가 有하리오.⁸³⁾

이제 민족은 국혼으로 무장하고 국권회복과 근대 국가 수립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시기 '민족' 담론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5. 독일 유학생들의 '민족' 개념 부각

한편 이 시기 '민족' 개념 수용의 또 하나의 통로는 일본 유학생들이었다. 한말 일본 유학생은 여러 학회를 차례로 만들어 학회지를 발간했다. 1890년대 후반 관비 유학생으로 독일한 유학생들은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를 결성하여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1895.10~1897.12. 총6호)를 발간했다. 태극학회는 『태극학보』(1906.8~1908.12. 총27호)를 발간했으며, 대한유학생회는

83)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3월 20일 「朝鮮魂이 稍稍還來乎」.

『대한유학생회학보』(1907.3~1907.5. 총3호)를 발간했고, 대한학회는 『대한학회월보』(1908.2~1908.11. 총6호)를 발간했고, 대한흥학회는 『대한흥학보』(1909.3~1910.5. 총13호)를 발간했다.

이들 각 학보에는 중요한 논설들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동포' '국민' '조선혼' '애국심' 그리고 '민족' 등을 언급한 글이 상당수 있다. 1890년대 후반 『친목회회보』에는 '동포'나 '국민'이라는 단어는 빈번히 등장하지만, '민족'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1897년 장호익의 글에서 세 차례 '민족'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민족은 탐관오리의 膏澤을 浚하난대 無氣無力하여 애국정신이 坼절하며"라고 하여, '인민'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즉 아직은 '민의 무리'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⁸⁴⁾

당시 유학생들이 더 즐겨 쓴 단어는 '국민'이었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발간되던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에서 잘 쓰지 않던 단어였다.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은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인민이나 신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간혹 국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긴 하지만, 그것은 '나랏사람'이라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친목회회보』에 실린 글에서는 명백히 '국민 주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용제의 「국민의 신용」이라는 글을 보면, "我國民이여 國을 愛하며 君을 愛할지어다. 國家는 我同胞 2천만 人民의 國家요, 政는 國家와 人民의 機關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었다.⁸⁵⁾ 그들이 이와 같이 국민을 강조한 것은 "民權의 消長이 國權 張弛에 權衡하니, 國權이 未振하면 民權이 不張하며, 民권이 未張하면, 國권이 부진하나니"라 하여, 민권이 국권

84) 張浩翼, 1898년(광무 원년) 12월, 「社會競爭的」,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 제6호, 57쪽.

85) 金鎔濟, 1896년(건양 원년) 12월, 「國民의 信用」,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 제4호, 23쪽.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⁸⁶⁾

유학생들이 ‘민족’이란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07년부터이다. 1907년 2월에 발간된 『태극학보』 제6호에 실린 최석하(崔錫夏)의 「한국이 갈망하는 인물」이라는 글을 보면, “英雄兒는 여하한 성격을 구비한 인물인가. 아 2천만 동포가 탐지코저 하여 주야로 연구를不息하리로다. 혹은 그 인물은 나폴레옹(나폴레옹) 같은 군략가라 恭爾不振한 민족을 警醒하여 百敗不挫하는 용기를 두뇌에 주입하여 세계 열국을 일시에 정복하고…”라는 부분이 있다.⁸⁷⁾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란 프랑스 민족이 될 것이다.

이후 민족이라는 단어는 유학생들의 글에 종종 등장했다. 학생들이 주로 말하고자 한 것은 한국인들이 ‘민족 관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윤태진은 한국인들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서로 친애하는 친족적 관념은 매우 강하지만 민족적 관념은 매우 약하다면서, 친족적 관념을 확대하여 민족적 관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若使我固有之親族之美德으로 擴及於民族的觀念이면 帝國之獨立을 唾手可期며 指日可回어날 何不爲此而昏昏然默默然 猶作桃源之春夢乎아”라 하여 친족 관념을 민족 관념으로 확대하면 대한제국의 독립을 기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⁸⁸⁾

또 악예(岳裔)라는 필자는 오늘날과 같이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국가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상의 개량혁신이 필요하다면서, 3가지 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3가지 사상이란 역사적 정신, 상무적 정신, 그리고 경제적 사상이었다. 이 가운데 역사적 정신을 말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86) 元應常, 1896년(건양 원년) 12월, 「내외정책의 여하」,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 제4호, 2쪽.

87) 崔錫夏, 1907년(광무 11년) 2월, 「한국이 갈망하는 인물」, 『태극학보』 제6호, 15쪽.

88) 尹台鎭, 1909년(융희 3년) 11월, 「喚起我半島帝國之民族的觀念」, 『태극학보』 제7호, 31~33쪽

자고로 일 민족이 일정한 토지에 주거하는 자는 그 민족에 관한 역사가 필요하니 일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과 始終을 같이하는 자이고 그 민족의 야만 및 문명의 연혁을 存記하는 자이며, 그 민족의 사상 및 정신을 대표하는 자이다. 祖宗을 尊慕하고 국가를 鍾애하는 관념이 역사적 정신을 由하여 感興하며 영웅을 숭배하고 민족을 親護하는 관념도 亦 此를 由하여 發生하나니 일 국가는 그 민족의 역사상 산물이고 역사는 그 민족을 지배하는 표본이다.⁸⁹⁾

민족과 역사가 시종을 같이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 글은 민족 형성에서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 민족은 명과 청의 역사만 알 뿐, 조선과 단군 기자의 역사는 잘 모르는 악습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결국 그런 가운데 “부지부식 간에 조선 민족 및 국가의 관념이 절멸함에 이르렀으니, 오호라 (중략) 사유컨댄 亡國의 원인이 전혀 此에 因홈이라 謂하리로다”라고 말했다. 망국(亡國)의 원인이 민족 관념, 국가 관념이 부족한 데 있었고, 이는 조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데에서 말미암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그 민족의 역사를 不知하는 자는 자기를 不知하는 자이니, 자기를 不知하는 자가 엇지 國家를 愛하며, 民族을 愛하리오. 然즉 一國을 據하여 販賣하며, 民族을 驅하여 奴隸를 삼고자 하는 자의 心術도 자국의 歷史를 不講하며 민족의 정신을 不顧함에 出한 자라”라고 말했던 것이다.⁹⁰⁾

유학생들은 동포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했다. 2천만 동포는 형제로서의 친근함, 나아가 동질성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동포’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미흡했다. ‘동포’라는 단어는 ‘애홀’

89) 岳裔, 1910년(융희 4년) 4월, 「三要論」, 『대한홍학보』 12호, 3쪽.

90) 岳裔, 앞의 글, 3~4쪽.

의 이미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존재', 더 나아가 '사해동포'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이란 단어를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글은 일세생(一歲生)이라는 필자의 「신시대의 사조」라는 글이다. 이 글은 우선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으나 吾人は 신시대에 출생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4,300여 년의 국가 역사가 일조에 상명(桑溟)의 변천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오호라. 금일에 한국에 遺餘物이 何物고 此를 정치상에 구하니 통치권의 일부 분도 餘在가 無하고 此를 실업계에 구하니 역시 一物이 無하고 사회상에 구하니 역시 一物이 無하고 다만 餘在한 것은 二千萬 民族이라. 어시호 吾人의 목표는 此 민족적 경영을 理想할 수 외에 他策이 無한즉 凡般事業을 此 民族的 主義로 계획하는 것이 제일 건전하니 민족이라 함은 국민의 일부분을 위함이 아니오 국민 전체를 표준함인즉 국민의 일계급의 활동과 국민의 일지방적 활동은 민족적이라 위할 수 無하니(하략).⁹¹⁾

이 글의 필자는 이제 한국에서 정치상, 경제상, 그리고 사회상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2천만 민족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이후의 모든 일은 민족이 주체가 되어 경영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민족적 경영은 어떤 계급이나 어떤 지방 중심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말한다. “今日 我韓은 國性이 已去에 餘存者는 民族而已라. 國利民福을 도모함에 제일 건전

91) 一歲生, 1907년(융희 원년) 10월, 「新時代의 思潮」, 『태극학보』 제14호, 19쪽.

한 정치적 활동은 여지가 更無하니 세부득이하야 此 手段을 民族에 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⁹²⁾ 여기에서는 ‘동포’라는 개념 대신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부각시켜 보려는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6. 맺음말

중국에서는 이미 『상서』 시대에 ‘족류’라는 말로써 종족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족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조선에서 ‘족류’는 ‘아족’을 여진족이나 왜족과 구별할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동포’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했다. ‘동포’는 본래 같은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갔다. 특히 장재의 『서명』에 나오는 ‘민오동포(民吾同胞)’라는 말을 국왕은 자주 인용하면서 백성들을 애호의 대상으로 지칭할 때,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국왕들은 더 나아가 양반 등 지배층에게 호포제 실시를 요구할 때, ‘모든 백성은 나의 동포’라는 말을 자주 끄집어 내었다. ‘동포’라는 말은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 운동 이후 더욱 자주 사용되었고, 그 의미도 확대되었다. 즉, 이때의 ‘동포’는 단순히 국왕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 동포 내부의 평등 또한 강조되었다.

그런 가운데 1906년 이후 국내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래 ‘민족’이란 상고시대 이래 중국에서는 ‘민의 무리’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를 서양의 nation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

92) 一歲生, 앞의 글, 22쪽.

본에서는 1870년대 초에 이미 nation을 ‘민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이를 따라서 양계초가 1903년경에 쓴 글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독일 유학생들은 일본에서의 용례를 따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1910년 이전에 그리 자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1906년 이후 양계초의 영향으로 ‘민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시작했으며, ‘대한민족’ ‘조선족’ 등의 호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 ‘민족’보다 더 많이 쓰인 용어는 ‘국민’이었다. 그것은 한국인이 ‘신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7년 하반기(고종 양위) 이후 대한제국은 형해화되어 갔고, ‘신국민’ 또한 기대안망이 되었다. 여기서 국권회복과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새로 떠오른 개념이 ‘민족’이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국권회복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 개념은 그 내부에 평등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설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근대 민족’ 즉 nation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되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독립운동의 주체,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 설정했다.

이상에서 한국에서 ‘민족’ 개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착했는지를 살펴 보았다.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 정립은 20세기 초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 『조선왕조실록』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조선유학생친목회회보』
『대한홍학보』, 『태극학보』
梁啓超, 1905, 『飲水室文集』(하), 廣智書局本.

2. 단행본

- Anderson, Benedict(1983),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 on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베네딕트 앤더슨(2002), 『상상의 공동체』, 윤행숙 역, 나남출판.
E. J. 홉스봄(1994),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창작과비평사.
Gellner, Ernest(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어네스트 겔너(1988),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역, 예하.
Huang, Philip C.(1972), *Liang Ch'i-ch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mid, Andre(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Columbia University Press; 앙드레 슈미드(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Smith, Anthony D.(1979), *Nationalism in Twentieth Century*, Oxford: Martin Robertson; The Ethnic Origin of Nations(1986),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앤서니 스미스(1996),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철구 역, 명경.
요시노 고사쿠(吉野耕作)(2001), 『현대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김태영 역, 일본어뱅크.
한글학회 편, 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3. 논문

- 권보드래, 2004, 「‘동포’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독립신문』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로,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 권보드래, 2007,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근대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 권용기, 1999,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집.
- 김동택, 2004, 「〈국민수지〉를 통해 본 근대 ‘국민」, 『한국사상사학』 12집.
- 박노자, 2004, 「개화기의 국민담론과 그 속의 타자들」, 『한국사상사학』 12집.
- 백동현, 2001, 「러일전쟁 전후 ‘민족’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 백영서, 1995,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 문제』, 지식산업사.
- 月脚達彦, 1999, 「甲午改革の近代國家思想」, 『朝鮮學報』 172, 朝鮮學會.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Minjok’ Concept in Korea

Chanseung Park(Department of History, Hanyang University)

■ Key Word : Nation, *Minjok*, *Kukmin*, *Jokrew*, *Dongpo*.

The Chinese used the word *Jokrew* to indicate a race in the age of *Sangseo*. The word *Jokrew* was also found in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suggesting that Korea was influenced by China. The Korean *Jokrew* was usually used to differentiate Korean people from others, such as *Yejin* people, or Japanese people. The word ‘*Dongpo*’ was also frequently found in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Although the original meaning of ‘*Dongpo*’ was brothers and sisters, the meaning was later expanded to define people under the care and rule of a king. Kings wanted to say that all the people were their ‘*Dongpo*’—particularly when a monarch wanted to collect taxes from the upper-class people, the *Yangban*. During the late 1890s, the word ‘*Dongpo*’ was used more frequently in Korea. By the 1900s, though, *Dongpo* no longer defined people who were in the care of a king; instead, the term described a major group in history. Likewise, equality among *Dongpo* started to be emphasized.

After 1906, the word ‘*Minjok*’ also began to appear in Korean discourse. Originally, it roughly defined a group of people in China. However, in the early

1870s, the Japanese started using the word to indicate 'nation.' Then, Liang Ch'i-chao, writing in China, also used the word '*Minjok*' to mean 'nation,' in one of his writings, produced in 1903. However, while Korean students in Japan would use '*Minjok*'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people in Korea only began to use the word '*Minjok*' due to the influence of Liang Ch'i-chao, after 1906.

Around 1906, the word '*Kukmin(volk)*' was more widely used than '*Minjok(nation)*' because the Korean people had an aspiration to become a '*new volk*.' However, when King Kojong abdicated, and the Empire of Korea fell, it seemed impossible for Korean people to become a 'new nation(*Kukmin*).' Thus, the concept of *Minjok* had risen. It was more appealing than *Kukmin*, given the condition that Koreans did not have their own state. It could also strengthen the movement for the retaking of the nation's sovereignty.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Minjok*,' thus, suggests that, in Korea, this concept was inherently sui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nation state.